

# KEDI BRIEF

발행일 2022. 7. 21. |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인 류방란 | 편집 대외협력단 홍보자료실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 연락처 043-530-9234

2022 Vol.12

www.kedi.re.kr

KEDI 분석 브리프

## 코로나19 시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와 변화

정동철 | 교육통계센터 연구위원

### 요약

- 현안**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평생학습이 확장되었지만 누적되어 온 특정 집단 간의 격차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다시 확인되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그동안 발간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의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소득분위별 분석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 문제진단**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던 저학력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비경제활동인구, 임시 및 일용근무자, 저소득층의 참여율을 5년 전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확대되던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짧은 기간 동안 과거로 돌아갔다.
- 정책제언** 코로나19 확산 이후 평생학습 불참요인은 높은 소득분위의 경우 개인적 요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낮은 소득분위의 경우는 여전히 구조적 요인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 강화 정책이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 1. 들어가는 말

- 코로나19의 발생은 우리 사회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다.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 수요자에게는 양질의 교육 부족과 접근성 문제, 교육 공급자에게는 공급 기회 박탈과 공급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존재했던 불평등의 누적 효과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본 브리프에서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의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소득분위별 분석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2~3년의 경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 ◎ 분석데이터: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실태를 진단하여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만 25~7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양상, 불참요인, 학습수요, 학습의 활동 패턴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조사대상 기간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였다. 응답자의 편의성과 조사의 정확성을 향상하면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1년 조사부터 조사대상 기간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전후하여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와 변화를 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 조사부터 2021년 조사까지 추이를 보려고 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초이지만 본 조사의 2020년 조사와 2021년 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이 6개월 겹치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의 초기와 본격적인 확산 시기를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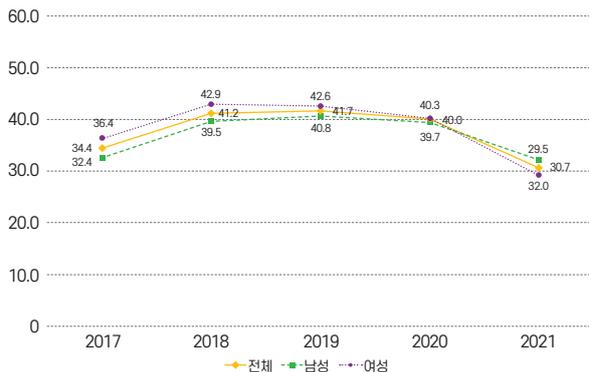


[그림 1] 각 조사 연도별 조사대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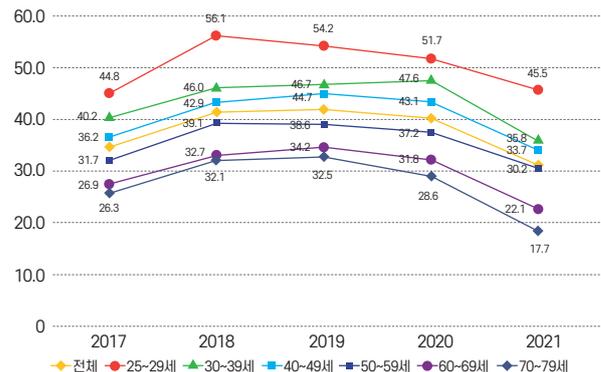
## 2. 평생학습 참여율

### 가. 성별,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율

-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2017년 조사에서 34.4%였던 평생교육 참여율이 2019년 조사에서는 41.7%에 이르렀다.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인 2020년 조사에서 40.0%로,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진 2021년 조사에서는 30.7%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역전되었다. 2017년 조사에서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율보다 4.0% 포인트 높았는데, 이후 남성과 여성 간의 참여율 격차가 차츰 감소하다가 2021년 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역전되어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보다 2.6% 포인트 높았다.
- 코로나19 발생 후 20대와 50대는 감소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았고, 30~40대와 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9년 조사와 2021년 조사를 비교하면 70대는 14.7% 포인트 감소하였고, 50대는 8.4% 포인트, 20대는 8.7% 포인트 감소하였다.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2017년도 조사보다 낮은 참여율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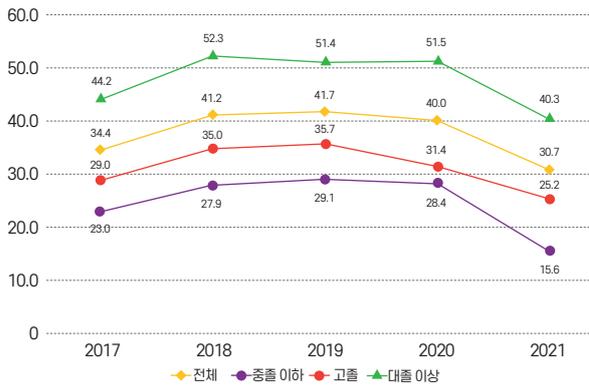
[그림 2]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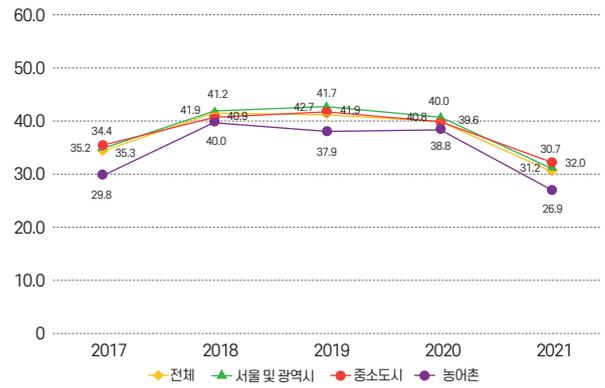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대별 평생학습 참여율(2017~2021)

### 나. 학력별, 지역 규모별 평생학습 참여율

-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졸 이하 학력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학력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모든 학력에서 평생학습 참여율이 비슷한 비율로 높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고졸 학력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른 학력자의 참여율도 감소하였다. 특히 중졸 이하 학력자는 15.8%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농어촌지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및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다소 부침이 있었지만, 농어촌 지역과 다른 규모의 지역 사이에 평생학습 참여율의 차이가 좁혀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평생학습 참여율의 지역 간 차이가 또 다시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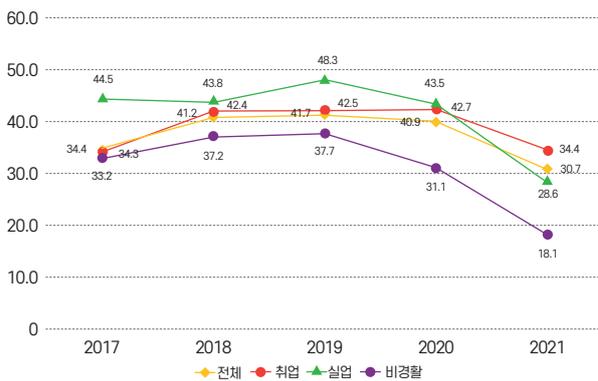
[그림 4]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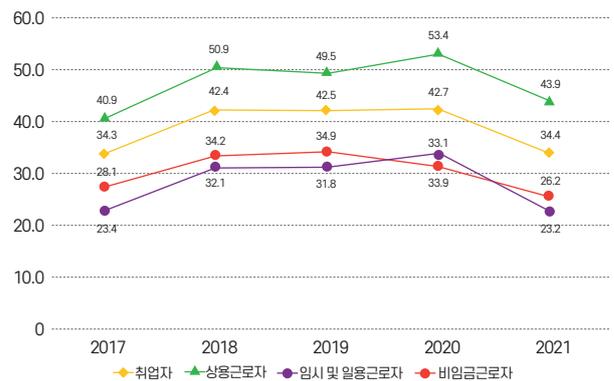
[그림 5] 지역 규모별 평생학습 참여율(2017~2021)

### 다. 경제활동상태별,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

-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년 조사에서부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율은 감소하기 시작해 전년도보다 각각 4.7% 포인트, 6.6% 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조사에서는 실업자 14.9% 포인트, 비경제활동인구는 13.0% 포인트 감소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 밑으로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취업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 조사 수준으로만 낮아졌다.
-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은 차이가 컸었는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평생학습 참여율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2017년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상용근로자와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와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벌어졌다. 2017년 조사에서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가 각각 17.5% 포인트, 12.8% 포인트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각각 20.6% 포인트, 17.7% 포인트로 더 벌어져서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의 차이가 더 심각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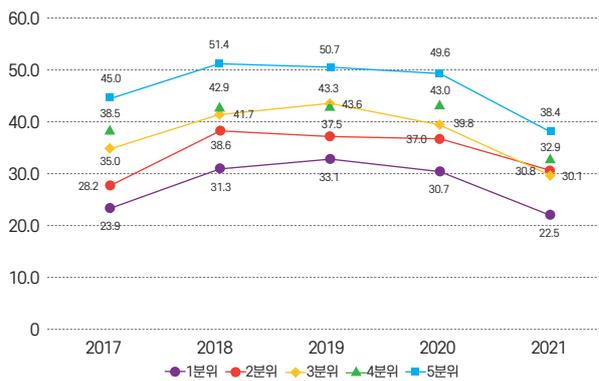
[그림 6] 경제활동상태별 평생학습 참여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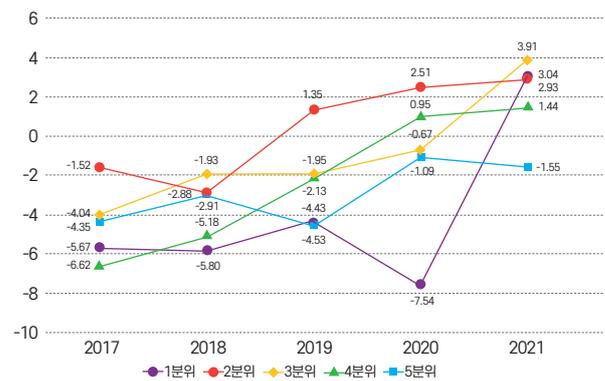
[그림 7]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2017~2021)

## 라. 소득분위별<sup>1)</sup> 평생학습 참여율

- 2017년 조사와 비교하여 2018년 조사에서는 모든 소득분위의 참여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2분위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계층의 참여율 상승 폭이 컸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에는 주로 3분위(3.8% 포인트 감소)와 1분위(2.4% 포인트 감소)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지만, 유행이 본격화된 이후에 전 소득분위의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조사와 2021년 조사 사이에 모든 소득분위에서 참여율이 감소했는데, 특히 3분위(13.5% 포인트)의 감소가 가장 많았고, 2분위(6.7% 포인트)의 감소가 가장 적었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남녀 간의 평생학습 참여율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2021년 조사에서는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보다 더 높아져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소득분위별 평생학습 참여율을 남녀 성별로 분리하여 보면,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 간의 역전이 나타났는데 5분위에서만 성별 간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2분위는 2019년 조사부터, 4분위는 2020년 조사부터, 1분위와 3분위는 2021년 조사에서 성별 간 역전이 발생하였다.



[그림 8] 소득분위별 평생학습 참여율(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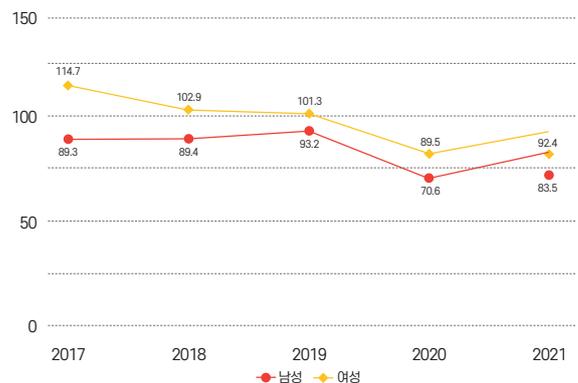


[그림 9] 소득분위별 남녀 간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2017~2021)

## 3. 연간 평생학습 참여시간<sup>2)</sup>

### 가. 성별·소득분위별·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시간

- 평생학습 참여시간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며, 성별 간 차이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연간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여성 114.7시간, 남성 89.3시간으로 25.4시간 차이가 났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여성 92.4시간, 남성 83.5시간으로 8.9시간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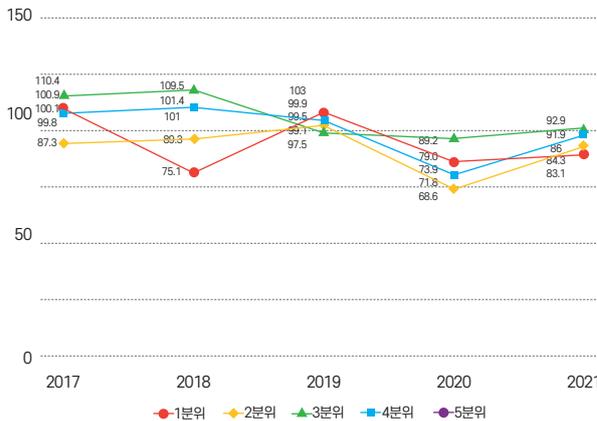


[그림 10] 성별 평생학습 참여시간(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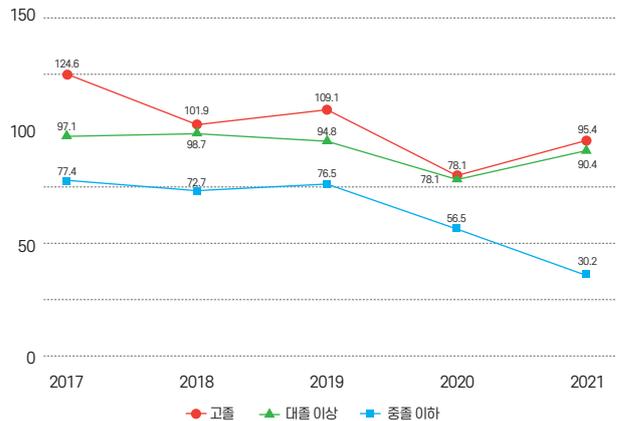
1) 본 브리프에서는 균등화 개인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균등화 개인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불평등 척도는 소득 분포의 상·하단의 값에 민감하여서 중위소득의 10배가 넘는 소득은 중위소득의 10배 값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2) 2017년 조사부터 2021년 조사까지 비교하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 유형 중 학력보완 교육은 제외하였다. 그래프는 각 시기의 평균과 95% 신뢰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별 간 평생학습 참여시간 차이가 줄어든 것과 같이 소득분위 간 평생학습 참여시간 차이도 감소하였다. 2017년 조사보다 2018년 조사에서는 1분위의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소득분위 간 차이가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인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감소하면서 소득분위 간의 차이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학력별로 보면 2021년 조사에서 중졸 이하와 다른 학력 간 차이는 확대되어 2017년 조사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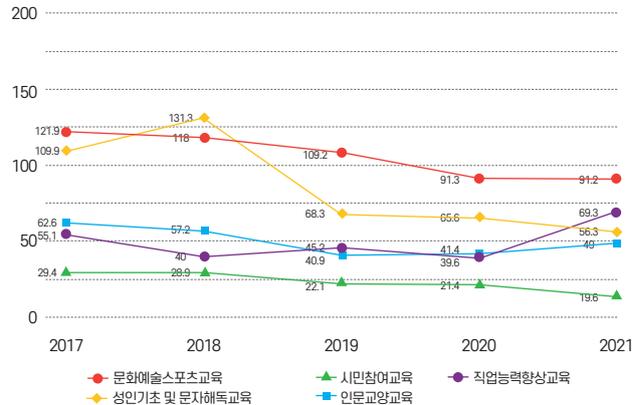
[그림 11] 소득분위별 평생학습 참여시간(2017~2021)



[그림 12]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시간(2017~2021)

## 나. 프로그램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시간

- 학위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시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업능력향상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은 증가하였다. 특히 직업능력향상교육은 2020년 조사보다 2021년 조사에서 30시간 정도 증가하였다.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시민참여교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점차 참여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13] 프로그램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시간(2017~2021)

## 4. 평생학습 불참요인

### 가. 평생학습 불참요인<sup>3)</sup>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2017년 32.0%, 2018년 30.6%, 2019년 31.2%, 2020년 30.2%, 2021년 23.0%), '동기, 자신감 부족'을 불참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들이 많아졌다. 지난 모든 조사에서는 평생학습 불참요인 중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1년 조사에서는 '기타' 응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2019년 0.6% → 2020년 3.4% → 2021년 29.3%), 대부분은 '코로나

3) 과거 조사에서 불참요인 중 '기타' 응답 비율이 1% 미만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 조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비교 용이성을 위하여 연도별 비교표에서는 '기타' 응답을 제외하였다.

19 영향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했다'(29.0%)라고 주관식으로 응답하였다.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나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의 응답도 많았으며, 최근에는 '동기, 자신감 부족'의 응답이 증가하였다.

-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남성의 경우가 훨씬 많이 선택했다.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와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선택했다. 특히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은 여성이 훨씬 많이 선택하여 성별에 따른 불참요인 차이가 뚜렷하였다.

〈표 1〉 평생학습 불참요인(2017~2021)

불참요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남성	여성	계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1.5	1.6	1.5	0.8	0.8	0.8	1.4	1.6	1.5	1.4	1.9	1.7	2.7	2.2	2.5
교육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1.4	1.6	1.5	1.3	1.4	1.4	1.3	1.7	1.5	3.6	2.7	3.1	6.3	4.0	5.0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	11.7	12.3	12.1	8.1	9.4	8.9	8.9	10.2	9.6	11.0	13.8	12.6	11.7	12.0	11.9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13.0	18.1	16.0	8.8	14.6	12.2	12.9	17.8	15.7	16.4	22.2	19.7	22.0	25.8	24.2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8.7	10.0	9.5	3.9	6.6	5.5	7.9	7.3	7.5	9.8	10.9	10.4	12.0	13.7	12.9
건강상의 이유로	2.3	5.6	4.2	1.7	3.2	2.6	3.6	5.5	4.7	2.1	4.2	3.3	3.1	5.9	4.7
동기, 자신감 부족	7.3	10.7	9.3	8.1	11.6	10.1	9.4	12.1	10.9	14.6	16.7	15.8	13.8	21.2	18.0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3.2	5.8	4.7	2.4	6.9	5.1	4.9	6.8	6.0	4.7	8.5	6.8	4.7	9.5	7.4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69.8	43.7	54.6	77.5	50.6	61.8	69.9	46.9	57.1	69.4	45.1	55.8	65.2	42.6	52.4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9.3	25.1	18.5	10.0	25.8	19.2	5.8	19.2	13.3	9.2	22.3	16.5	8.2	16.7	13.0
계	128.2	134.4	131.8	122.5	130.9	127.4	126.1	129.0	127.7	142.2	148.3	145.6	149.7	153.7	151.9

주) '기타'는 제외, 중복응답

## 나. 소득분위별 평생학습 불참요인

- 소득분위별 평생학습 불참요인의 특징은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기관 부족'과 '가족부양 시간에 따른 시간 부족'을 많이 선택했지만, 높은 소득분위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동기 부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은 지난 5년간의 조사에서 불참요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2019년 조사까지는 그 다음으로 '기관 부족'과 '가족부양'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불참요인으로 선택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조사부터 높은 소득분위는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 5. 시사점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평생학습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평생학습 참여율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평생학습 참여시간은 오히려 코로나19의 확산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역전되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그 이전부터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남성보다 많고, 남성과 여성의 평생학습 불참요인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의 차이는 참여율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차이는 참여시간의 차이에서도 이어진다.
- 경제활동상태별,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율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 검토가 더 필요하다.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던 저학력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비경제활동인구, 임시 및 일용근무자, 저소득층을 5년 전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과거로 돌아갔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평생학습 불참요인 중 높은 소득분위의 경우 개인적 요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낮은 소득분위의 경우는 여전히 구조적 요인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 강화 정책이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